

창업과 취업을 돕는 특별한 평생학습

헤어미용사와 도슨트로 뚝다

사하구는 구민의 창업과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반을 개설했다. 그 중 헤어미용사 국가기술자격대비반과 도슨트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참여도도 높고 후속 프로그램도 잘 이어지고 있다.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이루고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다.

헤어미용사 국가기술자격대비반(필기 실기 종합반)은 지난 3월 20명 정원으로 개설했다. 수강생들은 이론 공부에 전념하여 2주만에 응시자 17명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업은 기초 스타일, 테크닉 활용법, 컷트 실습, 다양한 염색과 탈색으로 진행되었다. 기초퍼머넌트, 업스타일, 디자인 과정도 배웠다. 30대부터 60대까지 이루어진 수강생들은 대부분 봉사 목적으로 헤어미용사에 도전하였으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실기시험에도 욕심이 생겼다. 곧 이어 있을 실기시험에 전념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헤어시저스'라는 동아리를 결성했다. 실습실을 대여하고 개인의 특기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 김원영 회장은 자녀들 머리를 직접 예쁘게 손질해주며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어 수강하게 되었다. 곽은진(38세·다대동) 씨는 자



격을 취득하면 미용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회원들은 사하구 행사와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헤어 서비스를 하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하구는 부산현대미술관을 건립하

면서 2016년, 2017년에 도슨트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사하구에 미술관이 생긴 것도 환영할 만한데 구민들에게 소정의 양성과정을 거쳐 자기계발과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더 환영할 만하다.

도슨트 양성과정 수료생들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 5월, 올해 부산현대미술관 도슨트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선발이 있었다. 최종선발자 8명 중 7명이 사하구 도슨트 양성과정 수료생이었다. 이들은 2018년 부산현대미술관의 도슨트로 활동하게 된다.

2017년 도슨트 교육을 받고 지난 2월

3~5명의 소모임을 가지며 '숨은그림 찾기' 동아리를 결성했다. 매달 미술 사책과 인터넷을 검색하고 웹 정보를 공유하며 스터디를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2명이다. 회원들은 전공자보다 비전공자들이 많다.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술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평일에는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 을숙도'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품설명과 전시안내를 자원봉사하고 있다. 주말에는 전문 도슨트에게 교육을 받기도 한다.

원현정(44세·괴정동) 회장은 "부산 시립미술관은 멀리 있어 자주 찾기 힘들었는데 부산현대미술관이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자기계발과 교양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회원들의 꿈은 미술작품보다 더 유명한 도슨트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산의 다양한 미술 행사에서 미술작품보다 빛나는 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최 진 평생학습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무더운 여름, 특강으로 시원하게

온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워라벨 프로젝트 강좌 열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특강을 연다. 가족형 프로그램, 인문 교양, 워라벨 특강 등 11개 강좌가 모집 중이다.

먼저 여름방학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형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생의 방학숙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 종이접기, 업사이클링 페트병 수경 재배기 만들기, 스티로폼으로 우리집 실내 텃밭 만들기 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부산현대미술관 탐방기는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에 맞추어 학습관에서 미술인문학-도슨트 양성과정을 듣고 선발된 도슨트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성교육 가족인형극은 성폭력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시간이 될 듯하다.

개인의 삶과 생활을 조화롭게, 리프레시한 삶을 위한 워라벨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실생활에 유용한 헤어컷 도전기, 건강

한 여름나기 핸드메이드 믹스칭 담그기, 미리 만나보는 세계휴양지 TOP4-유럽 편, 메디치 가문에서 전하는 현대인 리더십 코칭을 진행한다.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있다. 리센을 비롯한 11개 동아리가 오감놀이, 도자기 공예, 풍물놀이, 탈무드, 공예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러 동아리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구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여름특강 신청은 6월 30일, 재능기부 특강은 7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www.saha.go.kr/edu>)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학습관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	운영기간	요일	시간	재료비
여름 특강	숙제해결! 이야기 종이접기	청소년 (초저)	30	1차 7.23, 2차 7.28.	월	10:00~12:00	5천원
	숙제해결! 동화 이야기 종이로 만나는 세상	청소년 (초고)	30	1차 7.21, 2차 7.25.	토 수	10:00~12:00	5천원
	숙제해결! 업사이클링 페트병 수경재배기 만들기	청소년 (초저)	30	7.21.	토	10:00~12:00	5천원
	숙제해결! 스티로폼 활용 우리집 실내 텃밭 만들기	청소년 (초고)	30	7.21.	토	14:00~16:00	5천원
	모두의 성(性)교육 인형극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가족 (민3세~초등)	50	7.28.	토	12:30~13:30	
	숙제해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부산 현대미술관 탐방기	가족	20	1차 7.26, 2차 7.28, 3차 8.11.	목 토 토	10:00~12:00	
	3주 완성! 실생활에 유용한 헤어컷 도전기	성인	20	7.13.~7.27.	금	10:00~13:00	5~10만원
	건강한 여름나기! 핸드메이드 믹스칭 담그기	성인	20	7.25.	수	19:00~21:00	1만 6천원
	미리 만나보는 세계휴양지 TOP4 '유럽 편'	성인	30	7.10.~7.31.	화	19:00~21:00	
	메디치 가문에서 전하는 현대인 리더십코칭	성인	30	8.8.	수	10:00~12:00	
동아리 재능기부 특강	비타민 건강교실	성인	50	7. 3.~7.24.	화	10:00~12:00	
	도자기 핸드페인팅 나만의 접시만들기	초3이상	30	7.26.	목	10:00~12:00	5천원
	알쏭달쏭 우리아이마음 엿보기(미술심리)	초등	15	7.27.	금	10:00~12:00	3천원
	아름다운 사하 (스텐실 가방 꾸미기)	초등	20	7.27.	금	13:30~15:30	5천원
	우리풍물 배우기 (사물놀이)	초등	각 20	7.25.	수	10:00~12:00 14:00~16:00	
	민요와 민요장단 배우기	누구나	30	7.26.	목	14:00~16:00	
	3D펜으로 드림캐쳐 만들기	초3이상	20	7.24.	화	13:30~15:30	3천원
	3D펜으로 팔찌 또는 칸양경 만들기	초3이상	20	7.31.	화	13:30~15:30	3천원
	실버건강교실 치매예방체조	성인	18	7.31.	화	14:00~16:00	
	임마랑, 아가랑-두두둑! 국수비가 내려요	6세·부모	30	7.24.	화	16:40~17:20	1천원
	신나는 하브루타교실	초등	20	7.31.	화	14:00~16:00	
	자녀와 교감하는 탈무드영재창의놀이	성인	20	7.31.	화	14:00~16:00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놀이	초등	30	8.10.	금	10:00~12:00	
	나만의 향, 파우치 만들기	성인	20	8.14.	화	10:00~12:00	3천원

작은도서관의 끝판왕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을 다녀와서

책읽기 좋은 화창한 주말에 '구평예들 작은도서관'을 찾았다.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은 지난 4월 19일 개관식을 한 구평동에 새로 생긴 도서관이다.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짓겠다는 사하구의 목표가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공공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지은 작은도서관은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지만 평지와 가까워 좋았다. 사하구의 몇몇 작은도서관과 비교를 하면 위치가 좋은 편이다. 평지에 들어선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은 성인은 물론 노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구평예들작은도서관은 3층 필로티건물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유아동 열람실, 3층은 청소년과 성인 열람실 그리고 20명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한 리프트가 눈

에 띄었다. 리프트는 2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3층 성인 열람실까지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지을 때는 이점도 참고해 누구나 불편함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계단을 올라 2층 도서관 문을 열기 전 도서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넓은 정원이었다. 몇 그루의 나무와 꽃과 돌이 어우러진 정원은 마치 소담스러운 저녁식탁 같았다. 공부하다 잠시 쉴 때도 간식이나 도시락을 먹을 때도 담소를 나누기에도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2층 유아동 열람실은 유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보호자가 작은 소리로 책을 읽어줘도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액자와 화분은 3층 열람실을 더 예쁘게 꾸몄다. 눈이 머문 곳은 카페 테이블과 1인용 소파이다.



그 곳에 앉아 올해 부산시 원북원도서관 선정된 「아몬드」를 읽었다. 폭신한 소파라서 긴 시간 동안 책을 읽어도 집중할 수 있었다. 또 청소년도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른 도서관보다 고전문학이 많았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아 서고가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매달 새 책이 들어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와 책이 점점 채워져 갈 것이다. 분류기호에 따라 가지런히 정돈된 책은 모두 새 책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독서를 시작하기에

도 좋을 것 같다. 주민들에게 그 동안 미웠던 독서를 '구평예들작은도서관'에서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김성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접수 안내

- | 신청자격 | 사하구민
- | 운영기간 | 2018. 7. 26. ~ 8. 31. 주1회(총4회)
- | 접수기간 | 2018. 7. 10. ~ 7. 20.
- | 접수방법 | 사하구 통합예약 홈페이지
<http://www.saha.go.kr/reserve>
- | 수강료 | 무료(단,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부담)

노래와 율동으로 건강한 노후

백세 시대 준비하는 시니어뮤직가튼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강사와 수강생이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즐긴다. 음악에 맞춰 홀라후프를 마주 잡고 경쾌하게 몸을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몸동작이 자연스럽다. 어색해 서로 마주 보며 웃기도 한다. '시니어뮤직가튼'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현장이다.

시니어뮤직가튼은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강사 파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량 강화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수강생 대부분이 주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시니어뮤직가튼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인지 프로그램이다. 수료자들은 하반기에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강사로 파견된다. 배움을 재환원하는 형태이다. 시니어뮤직가튼은 손유희와 악기를 통해 뇌건강과 인지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신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다.

수강생들은 수업에서 활용되는 노래들이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여서 추억을 회상하며 부른다고 한다. 악기를 다루는 패턴은 더 관심 있게 참여한다. 수강생 김영심 씨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배울수록 흥미가 있습니다.

잘 배워서 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자 씨도 강의 중에 배운 것을 경로당에서 주민강사로 활동할 때 응용해 보았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르며 계란을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놀이였는데 어르신들은 계란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며 소통과 나눔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계란을 먹는 즐거움도 있어서 더욱 좋았다.

시니어뮤직가튼 홍임정 강사는 전통노래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쉬웠는데 “주민강사들이 배워서 또 가르치기 때문에 전통노래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민 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해서 우리의 전통 민요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말했다.

백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는 누구에게나 전망이다. 시니어뮤직가튼 강좌를 비롯한 노년을 위한 강좌가 계속 이어질 바란다.

손현아 평생학습구민기자
ssnyen@daum.net

마을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을활동가·마을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하구가 지난해에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사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 중 하나인 마을활동가 연수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마을활동가 연수프로그램은 올해 시작되었다.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다행복교육지구의 마을활동가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을활동가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마을교육활동가'이다. 마을교육활동가는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비마을활동가는 30대에서 60대까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이다. 전직 교사, 방과후 교사, 행복학습매니저, 학부모서포터즈, 생태해설사, 학부모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이들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됐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 전달법, 소통의 기술, 감정 코칭과 멘토가 되기 위한 대화법 등을 배운다. 교육은 6월 22일에 끝나지만 마을활동가의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예비마을활동가들은 구민들에게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 입소문을 내고 있다.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강선화(47세·괴정동) 씨는 사하구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되어 지원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마을 청소년 교육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장림 토박이인 정유진(49세·장림동) 씨는 동네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지인소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료 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마을교사도 공개모집으로 선정됐다. 마을교사 연수는 6월 27일부터 진행한다. 마을활동가와 마을교사가 함께 나서서 사하구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아름다운 그대

꿈은 이루어진다

시민극단 박성희 대표 이야기



사하구에는 ‘배우로 배우다’라는 시민극단이 있다. 5년 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개설된 연극 강좌를 듣고 만든 극단이다. 박성희(41) 씨는 배우로 배우다 대표이며 감독이다. 박성희 대표는 어릴 때 너무나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접었다. 하지만 연극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연극 강의가 있다며 아이를 봐 준다고 수강해 보라고 권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전업 주부로 연극 수강은 힘들었지만 그 꿈에 다가가고 싶어서 욕심을 내었다.

박 대표는 단원들과 일주일에 2회 2~3시간씩 공연 연습을 한다. 아이들이 어려서 어려움은 있지만 엄마가 하는 일을 뿌듯해 하니 미안한 마음은 조금 덜 하다고 했다.

5년 동안 연극을 하면서 잊지 못할 일도 많았다. 단원 중에 처음에는 남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분이 박성희 대표의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면서 대본을 천 번 이상 읽었다. 무대 위에서 판사역을 했는데 너무 잘해 가족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 일은 너무 감격해서 잊지 못한다고 했다. 또 사하구의 노인복지



센터에 가서 재능기부 공연을 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든 분들이 꼬깃꼬깃 접힌 천 원짜리 지폐를 주시던 일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배우로 배우다 단원 김태숙(50세) 씨는 “박 대표는 연극에 관한 감각이 탁월하다”라고 했다. 단원들 연령이 다양해도 한 사람씩 세심하게 챙기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지도자로서 자질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더 대단하다고 말했다.

박성희 대표는 만학도였다. 공부를 하면서 극단 연습을 할 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 때에는 참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지금보다는 젊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박 대표는 “연극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분들이 치유 받는 것이며 끼를 발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내안의 울림이라고 말했다.

박성희 대표는 연극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연극에서는 분장, 시나리오, 연출까지 모두 직접 한다고 했다. 외부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뜻 깊은 상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연극을 가르쳐 사하구 어울마당 연극 공연에서 대상을 받았다. 또 2014년부터 부산시 시민연극제에 매년 참가하여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고 한다.

사하구 시민극단이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팀이라고 했다. 10월에는 을숙도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시민극단의 이름을 걸고 첫 정기공연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즘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 신기하기도 하지만 끝만 화려하지 않은 내면을 많이 가꾸며 성장해야겠다고 한다. 박성희 대표의 앞으로의 꿈은 사하구 내에 연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연장을 하나 갖는 것이다. 빨리 그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사하구를 빛낼 여성리더 양성

고우니 행복 여성아카데미 뜨거운 성원 속에 진행



‘고우니 행복 여성아카데미’는 사하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평생학습 강좌이다. 사하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말 수강신청을 받았는데 수강신청자가 첫날 몇 시간 만에 정원 40명을 2배 이상 초과하였다. 담당자도 기대 이상의 관심에 깜짝 놀랐다. 결국 사하구 평생학습과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10명 늘인 50명으로 마감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2기 강좌도 기대를 모은다.

고우니 행복 여성아카데미는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15개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수업내용은 여성 리더십, 법률, 인문학,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강의마다 전문 강사의 열강과 열정 수강생들이 만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로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2시간 강의가 순식간에 지나간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기도 하지만 강의마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 심화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많았다. 류정희(46세·다대동) 씨는 고우니 행복 여성아카데미 강의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 공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강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싶은 전옥영(44세·다대동) 씨는 파워 스코치, 이미지 메이킹 등의 강의를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1기가 수료한 다음 후속 프로그램이 바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비쳤다.

수료식에 앞서 지역 주요 역사문화지를 탐방하고 수강생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주제별 강의에 대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기쁘다며 “자발적으로 동창회가 결성되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개하여 사하구에 올바른 시민문화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사하구에는 이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고우니 행복 여성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성 평생학습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

사하구 행복마을 4곳 선정

부산시는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해마다 행복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행복마을 만들기는 현재 동네를 유지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과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부산시가 지정한 도시재생 행복마을 중 사하구는 4곳이 선정되었다. 신평1동의 동매사랑 행복마을, 고정3동의 오작교 행복마을, 장림1동의 바닷가사랑 행복마을, 장림2동의 수풀메아리더주 행복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지역 주민의 역량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월 15일부터 바닷가사랑 행복마을의 ‘시니어 종이 솜씨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복마을 주민들이 희망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4개 마을에 모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 환경문제를 다루고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행복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내가 사는 마을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하길 바란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5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사하구의 특별한 육아, 우리가 책임진다

영유아오감발달 동아리 ‘별별톡톡’

‘별별톡톡’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감자극 놀이를 통해 생각을 키우고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아리다.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두뇌짱 영재짱’ 과정을 수료하고 유아교육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8명이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월 1회 정기모임에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공부와 수업 계획안을 만든다.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지난 5일 경쾌한 동요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감내꿈나무센터 밖으로 들렸다. 별별톡톡이 일주일에 한번 영유아들을 만나는 날이다. 영유아 오감만족 놀이에 맞게 두부를 이용한 ‘두부야 놀자’ 수업이 시작됐다. 먼저 선생님이 콩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중간 중간 아이들은 몸으로 콩을 표현하고 콩으로 만든 악기의 소리도 들었다. 또 두부를 잘라 먹어보고 으개어 보는 등 다양한 놀이가 진행됐다. 아이들은 두부의 촉감이 신기한 듯 계속해서 만져보며 즐거워했다. 아이와 처음 참가 한다는 김미영(30세·감천동) 씨는 “문화센터를 가려면 준



비해야 할 것도 많고 거리가 멀어서 힘들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이런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지은(38세·당리동) 회장은 전직 어린이집 교사였다. 박 회장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서 항상 아쉬웠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다시 만나니 즐겁다고 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배우고 느끼는 것이 커서 교육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 즐겁

다”며 동아리 활동이 보람되다고 했다. 별별톡톡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기관에서 한달에 한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수업 내용을 개발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라 했다.

활동초기 어린이집에서 재능기부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동아리회원들의 뛰어난 실력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을 탔다. 현재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지난 4월 하단 공동육아나눔터에 이어 감천 감내꿈나무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6월에서 8월까지 두부, 휴지, 국수, 콩 등을 사용하여 주 1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도 하반기에 ‘별별톡톡’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배달강좌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겁다는 별별톡톡의 승승장구를 기대한다.

김수현 평생학습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가까운 곳에서 배워요

행복학습센터 6개소 운영

사하구는 을 해도 가까운 곳에서 행복 학습센터를 6개소에 운영한다. 주로 하반기에 개강하던 프로그램들을 올해는 3개를 개강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개강한다. 고정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에서 4월을 시작으로 페이퍼 플라워 지도사과정 개강했고 5월에는 장림2동 행복센터가 역사로 인문학적 역량키우기를 개강했다. 다대도서관에도 문해지도사 양성과정이 개강해 진행 중이다.

6월에는 신평1동 행복센터에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과정을 장림2동 행복센터에서는 실버건강 라인댄스도 개강한다.

감천1동 행복센터, 신평2동 행복센터도 7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작년에 인기였던 어린이 요리교실과 신선하게 느껴지는 풍수인테리어, 타로심리상담사자격증과정,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치매예방 미술교실, 코딩 입문에서 자격증까지 등 다양한 과정들이 준비되어있다. 사하구민 누구나 가까운 행복학습센터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과 함께 나만의 역량을 발휘해보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안옥순 평생학습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센터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인원(대상)
신평1동 행복학습센터 (220-5212)	노인치매예방미술교실	7/26~9/27	목	10:00~12:00	20(60세 이상)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과정	6/27~9/19	수	10:00~12:00	20명
신평2동 행복학습센터 (220-5242)2	스마트폰 영상제작소	7/2~9/17	월	10:00~12:00	20명
	종이접기 초급 자격과정	7/3~9/18	화	10:00~12:00	20명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는 쉬운 한국사	7/3~9/18	화	13:00~15:00	20명
장림2동 행복학습센터 (220-5302)	실버건강라인댄스	6/18~11/5	월	15:00~16:00	30(65세이상)
	코딩 입문에서 자격증까지	7/3~10/30	화	10:00~12:00	20명
감천1동 행복학습센터 (220-5422)	플라워아트	7/4~10/10	수	13:30~15:30	20명
	풍수인테리어	8/20~11/12	월	13:30~15:30	20명
	타로심리상담사자격증과정	7/6~9/21	금	13:30~15:30	20명
회화나무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220-4834)	고전문학으로 배우는 역사	9/6~11/22	목	10:00~12:00	20명
	3D펜 지도사 양성과정	9/14~11/30	금	10:00~12:00	20명
다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220-5864)	살을 가꾸는 독서	10/4~12/20	목	10:00~12:00	30명
	명심보감	8/29~11/28	수	10:00~12:00	30명

나눔으로 만드는 행복 학습 공간

동네방네 학습관을 소개합니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우리구의 지역 특색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각종 시설인 공방이나 카페, 사무실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

사용자는 동아리 모임이나 체험 활동, 재능기부와 회의, 모임 등을 우리 집과 가까운 여러 공간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장소 공유나 홍보 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므로 유익하다.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아닌 일반 모임도 가능하다고 한다.

2017년 4월 1호점인 아이비즈 학원을 시작으로 2호점인 아토크카페&공방과 3호점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 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그 후 7호점 가온누리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15호점 푸른누리 작은도서관까지 작은도서관의 참여가 이어졌다. 현재 다대

주민 편의시설인 다대문화체육센터가 20호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과 배달 강좌를 진행한다. 전년도 운영실적이 활발한 학습관에는 사하구가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6월 말부터 소리너름과 아토크카페&공방 등 8개 학습관에서 동네방네 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 보면 좋겠다.

동네방네 학습관을 이용하려면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곳을 검색한 후 사용신청을 하면 된다. 무료로 학습장소 공유를 희망하는 우리지역 기관이나 시설은 유휴공간을 동네방네 학습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중 신청가능하다. 사하구 평생학습과(051)220-4806로 문의하거나 이메일(chyj72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동네방네 학습관 1차 프로그램 안내

연번	동네방네학습관	프로그램명	일시	비고
1	[5호점] 소리너름 동아리실	Fun! Fun! 웃음치유	6.26~7.24.(화) (19:00~21:00)	
2	[2호점] 아토크카페&공방	3일 완성 의류 실크스크린	7.3.~7.17.(화) (10:00~16:00)	
3	[1호점] 아이비즈 학원	홈 인테리어	6.26.~7.24.(화) (10:00~12:00)	
4	[4호점]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빠로서 행복하기	6.30.~7.28.(토) (13:00~15:00)	아빠와 자녀
5	[6호점] 형설모두학교	토탈공예	6.28.~7.12.(목) (19:00~20:30)	60세이상
6	[8호점] 미래건강연구소	색채심리	6.27.~7.25.(수) (10:00~12:00)	
7	[16호점] (주)동아기획	토탈공예	6.27.~7.18.(수) (10:00~12:00)	장애인
8	[18호점] 사하구청청소년문화의집	핸드립 바리스타	7. 5.~7.26.(목) (10:00~12:00)	